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20차, 숨가쁜 기도, 에베소서 1:3-14

© Dan Darko 및 Ted Hildebrandt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세션 20, 숨가쁜 기도, 에베소서 1:3-14입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서론을 살펴보았고, 지난 2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에베소서의 더 광범위한 배경을 보았고, 우리는 에베소서의 처음 몇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마지막 세션을 기억하신다면, 저는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특정 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어떤 그리스어 텍스트의 한 문장이고, 여러분이 앞서 보여드린 개요를 잘 이해했으므로 이제 몇 가지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절부터요. 3절에서 이 구절은 "하늘의 영역에서 모든 영적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여기의 근거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가 우리를 축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축복받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그가 참으로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그가 모든 영적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이다.

저는 학생 시절 에베소서 수업을 듣고, 오늘날에도 매우 유명한 교수로서 매우 명문 기관에서 가르치는 한 교수가 대학원생으로서 당시 모든 영적 축복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국가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고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의 사회적 차원, 당시 서부 소아시아의 사회적,

종교적 활동, 영적 축복의 투쟁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설명했고, 그녀는 매우 잘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에 대한 연구를 바치면서, 이 문장이 얼마나 풍부한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영적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이 문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영적 축복. 서론에서 기억할 수 있듯이, 1세기에 에베소에 살았다면, 삶의 모든 것이 영적 활동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농부는 잘하려면 영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젊은 소녀는 훌륭한 남편을 얻기 위해 영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가는 영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조차도 마법의 매력을 사용하여 승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너뜨리거나 경쟁하거나 추월하기 위해 영적 힘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탁월해지기 위해 영적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회에서 영적 축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한 일뿐만 아니라 영적 대리자가 그들에게 허락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집에 있는 신이든, 신이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특정 신사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을 위해 행한 위대한 일에 대해 이 신들에게 어떤 종류의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축복하신 위대한 것들 중 하나는 우리가 세부 사항을 풀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그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영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필요로 할 것을 그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데메테르 신전에서 필요로 할 것을 그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 제우스의 신전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축복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호라면, 그는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와우.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공간에서 모든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신께 축복을 드립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와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모든 영적 축복으로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합니다. 문장이 이렇게 시작된다면 바울이 왜 긴 문장을 썼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숨가쁘게 부르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50개의 이교도 사원, 마법 활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도시를 바라보고, 신이 신의 자녀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알다시피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영역은 에베소에서 논의하는 동안 어딘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개념입니다. 하늘의 영역이라는 개념은 장소나 무언가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 대한 우주론적 이해는 세상에는 세계의 영적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차원은 천상의 영역에 있습니다. 때때로 이 영역은 단계의 관점에서 생각됩니다.

이 영역에는 악하고 선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현실의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저는 다른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연구를 하고 몇몇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학자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가 감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세기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에는 영적인 힘이 작용하여 우리가 매일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나쁜든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쟁하거나 해치려는 모든 영적 권세를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그들 위에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리스도를 그들 위에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때때로 신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영역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류학이나 인간에 대한 관점이 인간은 몸, 영혼, 영, 또는 몸과 영, 또는 몸,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삶을 사는 방식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 몸에 관한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인간의 영혼이나 영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웰빙을 형성할 수 있는 영적 영역이나 영적 기관 또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싶어한다는

생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독자들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삶의 영적인 부분이 사악한 영적 기관에 의해 활력을 얻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부정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찬양하라. 당신은 그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좋은 곳에 있습니다.

신을 찬양하라. 내가 서론에서 일찍 보여준 이 신들을 알고 있으니까.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당신이 아플 때,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일 때, 당신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서 이 신들에게 충성을 바치거나, 그들에게 묻거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와인의 여신에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르테미스의 신사에 갈 필요도 없지만 아르테미스의 영적 축복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영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국 학자의 말을 가장 잘 좋아합니다.

이것은 특히 하늘의 우선순위이며, 그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늘의 영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와 반대되지만, 하늘 안에는 여전히 권능이 있습니다. 하늘은 인간 삶에서 초월적인 차원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존재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상징된 가능성과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권세. 그리스도가 선택되면, 믿는 자들은 하늘에 있고 그들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의 머리 아래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영역에서 모든 영적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찬송이 있을지어다.

왜? 제가 당신을 위해 이것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 신께 축복이 있기를 . 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했고, 그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를 찬양합시다.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제가 거기에 넣은 간략한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간략한 개요를 사용하여 이 한 문장을 풀어내고 그것이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찬양합니다. 와우.

4절. 세상 창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우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어딘가에 갇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라 집단 전체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가 연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사실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강의 시리즈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당신도 우리에게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후에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게 하세요. 아니요.

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선택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오, 만약 당신이 칼빈주의자라면, 그것에 대해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비참한 사람들이 거짓 신을 믿고, 온갖 종교 활동에 손을 대고, "너희가 너무 불쌍해"라고 말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당신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마치 신이 휴가를 온 것처럼 해변에 있고,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는 아이가 익사하는 것을 보고, 그냥 달려가서, 그 특정 상황에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신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믿음의 공동체로 모으는 것이 그의 의도이자 바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 주장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확장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곤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위험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함과 흠 없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도록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함과 흠 없음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회에서 행동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에서 거룩함에 대한 구약성경의 참고문헌을 제시했는데, 그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거룩하도록 택함을 받거나 따로 구별되었다고 말할 때, 신명기의 구약성경

본문은 그들이 속한 타락한 사회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은 따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로 구별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읽힙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당신 앞에서 많은 민족을 몰아내실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즉 민족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기둥을 부수어라.

그들을 숭배하지 마라. 그들의 상처난 기둥을 치유하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불로 태워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그의 백성, 그의 소중한 소유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이교적 활동 중에 섞이지 말라.

에베소서에서 그는 우리를 거룩하게 선택하셨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존재로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이미지는 희생으로 바쳐질 동물의 이미지입니다. 동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동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 없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도덕적 함축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와우.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입양이라는 단어는 제가 앞서 암시한 바입니다.

특히 로마인들 사이에서 입양은 매우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입양이 행해졌습니다. 오늘날 서양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입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자란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이해는 아닙니다. 입양이나 누군가의 아이 입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저 누군가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와서 저와 함께 살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저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학교에 가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교육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이 결혼할 때까지 거의 그들의 부모처럼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면, 그들은 삶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요. 저는 그들의 부모가 아니에요. 저는 법적 서류가 없어요.

저는 아무런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부모님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자란 문화예요. 그래서 21살 때부터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을 제 휘하에 두었어요. 그들은 그게 입양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 문화권에서 왔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입양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입양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입양한 사람의 합법적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효율적으로 사용한 이 특정 단어는 그리스어 *uiothesia* 입니다 .

*Uiothesia*는 일반적으로 입양된 남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는 *Til lman*이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일반적이었는데, 가족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남자 아이를 상속인으로 받아들이는 법적 관행을 지칭했습니다.

이 아이는 상속권을 가질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여한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입니다. 이 긴 문장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미래에,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들이 온전히 차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들은 입양된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자원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각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는 큰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특정 구절,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에 의해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학자들이 고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만약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을 위해 지불된 대가라고 번역한다면, 구원을 위해 대속물이 지불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바울이 몰랐던 것이 초기 기독교에서 발전할 것입니다.

학자들과 종교적 기독교 지도자들은 속죄 교리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교리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해 중 하나는 우리가 대속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속 이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대가가 지불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와 씨름할 것입니다. 캔터베리의 성

안셀름은 말할 것입니다. 오, 대가가 누구에게 지불되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탄에게 지불되었습니다. 아니요.

하느님은 사탄과 협상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가가 누구에게 지불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이 구원의 대가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이 값싼 수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입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그러한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에서, 그는 정말 멋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값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우리의 범죄의 용서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보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피를 통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2장 초반에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리고 아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 속에서 죽고, 생명이 없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찬양의 정신으로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지불된 큰 대가를 통해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내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바울은 나중에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성공을 거둔 것은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는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 용서했다.

오, 이거 좋다. 구원. 구원이라는 언어는 때때로 노예가 엄청난 빛을 지고 노예로 잡혀서 빛을 갠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때 노예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언어다.

또한 복원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보석이 실제로 쓰레기통에 분실되어 10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녹슬고, 녹슬고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못생기고, 집어올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금세공인에게 보내세요. 그 보석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과정은 또한 구속의 언어가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이 있을지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음으로다"라고 말합니다.

와. 그리고 그는 이것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동기로? 오, 8절. 그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는 7절 끝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풍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이 bounty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 영어로는 잘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당신이 부를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의 정도와 규모가 여전히 은혜가 고갈되지 않을 정도로 은혜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빛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자유의 상태로 인도할 만큼 용서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교도 세계에서 접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두었던 온갖 죄에 대해 생각하고, 만약 당신이 그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가는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로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협상이나 조작을 통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학교 중 하나에서 풀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업에서 한 학생에게 풀은 오사마 빈 라덴이 살아 있을 때 오사마 빈 라덴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풀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용서할 만큼 충분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 그들이 주변의 모든 출처의 맥락에서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닌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의 부요함에서,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서 그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구원에 관해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리스어 단어 *ten apolutrosin*, *they are two aimat os*, *are two*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구원을 그의 피에 의한 구원으로 번역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는다는 은유가 그에게 살아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 의미가 이방인 독자들에게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구원에 대한 은유를 사용한 주된 관심사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 마치 그가 예전에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동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에베소서에서 하듯이 적용한다면, 가끔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고는 에베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으니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당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안겨주든,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당신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당신이 이 은혜의 본질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사실입니다. 8절, 그는 모든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하신 선한 기쁨에 따라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때가 차서 계획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신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신비를 알리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행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한 기쁨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관리하시는 일에서 그는 이 신비를 알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계획이 거기에 있었고, 그는 그저 그 계획을 실현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 이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할 것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연구했습니다. 그 단어, 모든 것을 합한다는 단어는 학자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풀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단어가 우두머리의 의미와 우두머리 아래 모든 것을 요약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고전학자들은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아마도 신약성서에서 한 번 사용된 언어가 고전 문학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어 변호사나 개인이 사건을 종결하려고 할 때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들은 모든 핵심 요점을 요약하여 모든 자료를 압축하여 판사에게 간결한 방식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부 변론을 종결 변론이라고 부르지만, 일부 종결 진술은 너무 길다. 여기서 제기되는 요점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연설가가 마지막에 핵심 요점을 요약하는 능력은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의 종류입니다. 또는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능력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도록 신비를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하세요. 사물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드신 세상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3장에서 이 개념이 더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아주 최근에 쓰여진 프랑스어 해설에서 이것을 가장 간결한 방식으로 제시하려는 아주 좋은 방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설가나 작가가 주장의 요소들을 모아서 그것들이 연설이나 작문의 주요 요점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주에 질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용하여 창조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땅에 있는 것들이든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영적 축복을 주셨으니, 그가 우리를 그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는 그 길을 가셔서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비를 알리고, 이 신비는 여러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글쎄요, 이 긴 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다음 사항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슬픔 테스트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1순위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속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인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는 우리를 인봉하셨으니,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13절.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었을 때,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그것을 소유할 때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됩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인치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다.

속임수가 아닌 진실. 나는 종종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면 자신 있게 "나는 길이요, 진실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인장을 받은 자들과 믿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 성령으로 인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인봉이 수반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글썄요, 바울이 그의 법계열에서 언급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면, 먼저 예치금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믿는 자의 상속을 보장하는 예치금입니다.

둘째, 확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믿는 자의 소유의 구속을 보장하는 인장입니다. 와우.

14절에서 그는, 우리가 소유할 때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인 성령을 언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약속으로서의 성령의 임재를 말한다.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는 이것이 미리 약속된 영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끝에서 우리는 약속된 성령으로 인봉된 그를 믿습니다. 구약에서 알려진 성령의 역사에 대한 약속을 암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약에 대한 이 암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약속의 예를 하나, 적어도 구약에서 그러한 약속의 예를 하나 또는 두 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바울이 초기 기독교 교회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엘 2:28-29, 나는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딸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심지어 남녀 노예에게도 환상을 볼 것이니라.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두겠다. 나는 그들의 육에서 돌의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살의 마음을 주겠다. 영, 약속된 영이 효력을 발휘했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그리고 그 영은 보증이며, 약속입니다. 그리스어 단어 Arrabon . 이 그리스어 단어 Arrabon 에서 Andrew Lincoln은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라본 , 또는 선불금에서 담보로 번역된 단어는 주어진 것이 더 큰 전체의 일부이며 그 전체와 같은 종류이며 전체 지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다가올 시대의 구원에 대한 첫 번째 할부이자 보증이며, 그 존재 양식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선불금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성서문학 학회의 동료들을 자극하여 에베소서 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게 했고, 바울을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 미래에 대한 우리의 보증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증하셨다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칼빈이 에베소서를 사랑한 것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은 제가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의 임재를 맡기고 보장했는데, 그 유산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소망, 실질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신학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죠. 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오,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오, 맞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지만, 그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바울의 요점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택하셨고, 당신을 구속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인봉하셨고, 당신을 위한 상속 재산, 미래의 소유를 보장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숨가쁘게 부르는 기도에서 가장 잘해야 하며,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인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여, 어서 가자. 그의 이름을 찬양하자.

그게 기독교를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온갖 감정이 듭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몇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여기서 영의 인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식별하고 보호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인장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알아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거나 쫓아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표시했으므로, 그의 진노 속에서 그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와우. 영의 인장은 선금금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속 재산이 진짜임을 동의하고 보증하는 자신의 도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의 인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시장에 가져가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아닌지 판매하려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싸게 팔려고 할 때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구원은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켰습니다. 특권은 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서둘러 말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믿음을 위해 좋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십시오.

이 긴 문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타나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저는 가톨릭 성서 협회의 동료 학자 프랭크 마테라가 워싱턴 DC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프랭크가 올해나 내년에 은퇴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그의 대사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의 신비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전치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축복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3절),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4절).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6절). 그분 안에서 그들은 구속을 받았습니다(7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9절), 왜냐하면 그는 하늘이나 땅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10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11절).

첫째, 사람들은 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12절). 그리고 그에게서 그들은 모든 진리를 들었습니다(13절). 그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설교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몇 번이나 들었나요? 기독교 대화에서요?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영적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노스 파크에서 가르치는 스노그래스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모든 삶의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잊는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정의하는 존재 안에서 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면의 정의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영으로 힘을 얻는 데서 오는 내면의 정의가 나옵니다. 저는 North Park Theological Seminary 교수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Snowgrass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에베소서 에 대한 스노우그래스의 해설을 읽을 때, 그는 에베소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전혀 사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

Snowgrass는 논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이 긴 숨가쁜 기도의 끝에서 당신은 또한 반복해서 나오는 목적 의식의 진술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과 14절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 우리를 구속하신 분,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인봉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12절과 13절. 6절.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이 삼위일체적 범위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부, 그리스도, 성령이 모두 이 토론에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와우.

알다시피,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전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면서 이 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교도주의, 마법, 악마에 대한 두려움, 사탄의 활동에 대한 두려움,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치유의 장소가 없다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영적 축복을 주신 신을 찬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마을에서 자라면서 이교도주의가 진짜였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악마의 활동은 진짜였습니다. 사실, 저는 특정 부족이 특정 형태의 주술을 행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 제 지역에도 몇몇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역 언어로 Tukwe 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특정한 의식을 수행하고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으며, 그들은 사람을 죽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수백 마일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사람이 비교적 동시에 교통사고나 어떤 종류의 일로 죽었다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들은 매우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악한 권세들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자란 맥락에서 실제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소년으로서, 나는 여러 번 그 모든 것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 부두, 주술, 이교도의 작은 사당을 가져와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제가 마을로 돌아와서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있을 때, 저는 무언가를 관찰합니다.

이런 것들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방식, 춤추는 방식은 때때로 제가 서구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썼다는 사실에 도전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청중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확신을 공유했고, 그래서 그는 이 편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도록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모든 영적 축복을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실재합니다. 그는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축복을 붙잡으시다. 그 확신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합시다. 매일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들 중 일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바울과의 이 산책이 참으로 풍요로운 산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세션 20, 숨가쁜 기도, 에베소서 1:3-14입니다.